

광주시청 주부 마라토너 노현진 새만금마라톤 3위

# 5년 육아 공백 딛고 재기의 신호탄 쐈다

두 아이 키우느라 운동 쉬어 복귀 4개월 첫 풀코스서 입상 “달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광주시청 노현진(34)이 5년 공백을 딛고 재기의 신호탄을 쐈다. 노현진은 지난 9월 2023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대회 풀코스를 2시간41분17초에 완주, 이수민(논산시청·2시간34분59초), 김은미(여주시청·2시간36분59초)에 이어 3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노현진의 풀코스 완주와 3위 입상은 의지와 간절함이 만든 결과다. 그는 전남체고 출신으로 대구은행을 거쳐 지난 2012년 광주시청에 등지를 틀었다. 당시 광주시청 심재용 감독과 만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당시 발등 부상에 아킬레스건도 좋지 않아 고전했으나 심 감독의 지원과 정기선 코치의 지도로 기량을 끌어올렸다. 그해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 여자일반부에서 2시간37분39초 우승으로 생애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당시 우승은 대회 인기몰이여서 마라톤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군산새만금마라톤에서 2시간42분12초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하지만 노현진은 결혼과 두 아이의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트랙을 떠났다.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마지막 출전이었다. 이후 5년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마라톤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았다. 달릴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기억을 떠올린 노현진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심재용 감독을 찾았다. 심재용 감독은 노현진이 오랜기간 운동을 하지 않았으나 선수로서 재능, 다시 뛰고싶은 의지를 높이 샀고 기회를 줬다. 노현진은 정기선 코치와 함께 몸 만들기를 시작했다. 워낙 오랜기간 쉬었으나 의지와 간절함이 컸고, 힘든 훈련을 모두 이겨냈다. 특히 8살, 2살 두 아이의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상황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만큼 집중력과



운동강도를 높였다. 다시 트랙에 선 기간은 불과 4개월. 지난 2월 두차례 대회에 참가, 10km와 하프코스를 뛰었다. 그리고 복귀 이후 이번 대회에서 풀코스 에 처음 도전했다. 노현진은 대회 직전 감기에 걸려 컨디션 조절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풀코스를 완주했고 목표했던 2시간40~42분도 맞추는 성과를 냈다. 육상계에서는 노현진의 재기를 놀라워하고 있다. 심재용 감독은 “5년 공백기를 거쳐 4개월 운동하고 마라톤 풀코스에서 입상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 노현진이 정말 잘 뛰어 왔다”고 칭찬했다. 심 감독은 “상반기에 군산새만금마라톤을 뛰었으니 다시 차분히 준비해서 하반기 전국체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암군씨름단 최정만 17번째 금강장사 ‘포효’

평창오대산천씨름대회 결승서 이주용 3-0 제압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올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최정만은 11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

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결정전(5전 3승제)에서 이주용(부산갈매기씨름단)을 3-0으로 제압했다. 1월 홈인 영암군에서 열린 설날 대회에서 금강급 우승을 차지한 최정만은 이로써 시즌 2관왕을 달성하며 개인 통산 17번째 금강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8강에서 김철겸(울주군청)을 2-0으로 꺾은 그

는 4강에서 만난 신현준(문경시청)을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최정만은 생애 첫 장사에 도전한 이주용을 상대로 노련하게 점수를 따냈다. 첫 판과 두 번째 판 연속 잡체기로 2-0을 만든 최정만은 세 번째 판에서 등채기로 상대를 쓰러뜨리고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11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에 올라 포효하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피겨대표팀 '팀 트로피' 첫 출전 차준환·이해인 선봉 메달 도전

피겨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국가대표 국제대회인 '팀 트로피'에서 사상 첫 메달 획득을 노린다. 차준환, 이시형(이상 고려대·남자싱글), 김예림(단국대), 이해인(세화여고·이상 여자싱글) 등 피겨 대표팀은 11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월드컵 팀 트로피 대회가 열리는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팀 트로피는 2009년 시작된 피겨 단체전이다. 격년제로 매년 일본에서 열고 있다. 이 대회는 ISU가 주관하며 한 시즌 동안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6개국이 경쟁한다. 한국이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지만, 팀 트로피는 처음 나선다. 한국 피겨는 단체 종목인 페어, 아이스댄스에서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외국 국적의 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단체전 경쟁력을 키웠고, 팀 트로피에 첫선을 보이게 됐다. 아이스댄스 국가대표 임해나는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졌고, 그의 파트너인 최안에는 중국계 캐나다인이다. 임해나-최안에는 지난해 열린 ISU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페어 종목에 출전하는 조혜진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이중국적 선수다. 애드록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다. 2022년 팀을 결성한 두 선수는 이번 대회가 국제무대 데뷔전이다. 한국은 지난해 열린 시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남녀 싱글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차지한 차준환과 이해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연합뉴스

##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안전한 체육인프라 만들기 주력

공공체육시설 현장 점검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안전한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1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전 회장은 이날 체육회 임직원과 영주종합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등 총 23개 시설을 점검했다. 시체육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이다. 시체육회는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예방 점검을 했다.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 점검도 했다. 코로나 엔데믹에 맞춰 체육시설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영주종합체육관 개선 공사가 오는 7월 마무리되면 더 좋은 환경에서 AI페퍼스배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월드컵경기장과 보라매축구공원, 전천후계이트볼장 등도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시민이 불편함 없도록 광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산을 반영하는 등 꾸준한 스포츠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공공체육시설은 시민과 선수를 위한 공간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전갑수(왼쪽에서 두번째) 광주시체육회장이 11일 광주시 서구 무등아구장을 방문해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수요자를 위한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역전의 개구리’ 고양, 인삼도 집어삼킬까

프로농구 고양 캐롯-인삼공사 4강 플레이오프서 맞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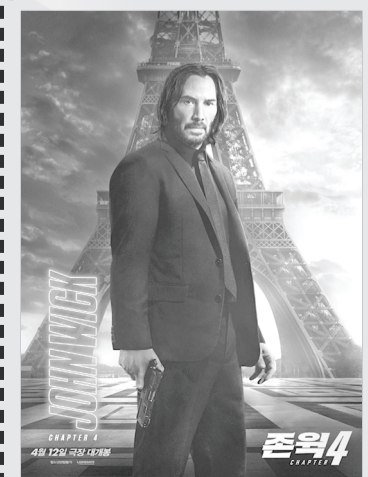
고양 캐롯과 ‘완벽한 1위’ 안양 KGC인삼공사가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맞붙는다. 김승기 감독이 지휘하는 캐롯과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인삼공사는 13일 오후 7시 인삼공사 홈인 안양체육관에서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PO-5전 3승제) 1차전을 치른다. 정규리그 5위 캐롯은 4위 울산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치른 6강 PO에서 마지막 5차전까지 가는 명승부 끝에 시리즈 전적 3-2 역전승을 거두고 올라왔다. 구단 자금난, ‘주포’ 전성현의 돌발성 난전에 따른 전열 이탈 등 여러 약재를 뿔뿔 뭉치는 응집력으로 이겨내고 ‘하위 팀의 반란’을 이뤄냈다.

인삼공사는 프로농구 사상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정규리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1위’를 달리는 ‘와이여 투 와이여’ 우승을 해냈다. 프로농구 역대 3번째 사례다. 캐롯 이정현과 인삼공사 변준형의 ‘가드 대결’도 관심을 끈다. 노련해진 변준형의 경기 운영 덕에 인삼공사는 정규리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낼 수 있었다. 변준형은 정규리그에서 평균 14.1득점 5어시스트를 올렸다. 이정현은 PO에서 잠재력을 폭발하고 있다. 평균 24점을 책임지며 전성현의 빈자리를 메웠다. 캐롯이 인삼공사를 꺾는다면 창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된 구단으로는 처음으로 첫 시즌에 챔피언결정전에 오르는 역사를 쓴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 2관 존 워크 4
- 3관 존 워크 4, 나는 여기에 있다, 물안에서
- 4관 존 워크 4
- 5관 리버랜드, 나는 여기에 있다
- 6관 스즈메의 문단속
- 9관 소울메이트, 라스트 필름 쇼
- 7관 씨네키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에어, 나는 여기에 있다, 오토라는 남자
- 8관 씨네키움 겨울 속 외딴 섬,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